“지역불교 활성화 ‘사회참여’에 달렸다”

미래본부, 11월 28일 보고회 개최
박수호 교수, 지역불교 활성화 발표
시민 101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불교 호감도↑ 사회참여도↓
불교 사회참여 방안 모색 필요”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종교 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가 1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반인 717명, 공공영역 종사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내 불교의 신뢰 평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불교가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긍정적인 종교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기타 종교) 중 불교는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42.4%, ‘호감있는 종교’ 39.8% 등 수치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이런 설문결과가 불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호감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영역과의 관계 원활도 측면에서 불교가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지역주민에게 불교는 사회참여도가 다소 낮은 종교로 비춰짐이 나타났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활동을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교는 전체 설문참여자 17.9%의 선택을 받았다”며 “불교는 가장 많은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다소 적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설문 참여자들이 불교계가 사회적 약자와 인권 관련 활동을 확대하길 바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전국의 다섯 권역(서울, 중부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별로 ‘불교가 신뢰받기 위한 최우선 활동’을 질문했을 때 ‘사회적 약자와 인권 활동(평균 33.2%)’과 ‘정신 건강 관련 활동(평균 40.18%)’ 확대를 요구했다”며 “이것은 지역사회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불교와 지역사회의 협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조사결과에 따른 불교와 지역사회를 협치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사회 소외계층 위한 불교복지 강화 △불교계의 윤리적 실천운동 선도 △불교단체와 불교시민사회단체 역할 확대 △사찰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신 안정을 위한 불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고회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흔히 종교위기시대라며 탈종교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재, 종교계 역시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사찰과 연구기관이 함께 한 교구와 지역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연구는 미래 불교를 만드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고회는 사찰과 지역사회 협치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직지상생포럼’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아울러 사찰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서울 소재 사찰 호압사(주지 현민 스님)와 성림사(주지 현담 스님)의 특성화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천년을 세우다’ 종책사업에 동참 행렬

중승대 총동문회, 동학사 승가대 등
조계종 포교사단도 3861만원 전달



중승대 총동문회는 11월 22일 ‘천년을 세우다’에 1000만원을 전달하고 지속적 동참을 약속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계종 종책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스님과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와 충남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오 스님), 영주 부석사 석연회(회장 박헌옥)는 1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을 전달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은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중앙승가대 동문들이 종단 목적사업에 함께하자고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중앙종회의원들 중 중앙승가대 출신 동문모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동문회 차원에서 종단 불사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동학사 승가대 신임 동문회장 우하 스님과 전임 회장 거제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은 불사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은 “총무원 주요 종책사업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동문회에서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한다”며 종단불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 날, 부석사 석연회는 불사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사업의 원만 회향을 발원했다. 이화춘 부석사 신도회장은 진우 스님에 “‘천년을 세우다’ 불사 소식을 듣고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석연회에서 매년 모연하는 회비를 기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가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3861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포교사단은 선명상 보급을 확산해 전법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영석 단장은 “그동안 포교사단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강릉 인월암 산불 구호금 등을 전달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약소하지만 종단사업에 일조하고자 성심성의껏 기금을 모연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보시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기금을 전달해준 불자들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는 현재 유네스코,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공단, 경북도청, 경주시 등 관여 기관만 6곳이다. 행정적 절차를 거치느라 다소 더디지만 원만한 회향을 위해 조계종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감사패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교유산 보존 노력 공로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불교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힘쓴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전라남도는 전국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5개 주요 본사를 간직한 곳”이라면서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보존돼 있는만큼 전라남도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후세에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종단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불교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앞으로도 조계종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보전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담양군에서 추진 중인 국제명상센터 건립도 언급하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제명상센터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며 “조계종과 협력, 지역에서 세계명상대회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시대 맞는 종헌종법 위해 면밀히 살필 것”

종헌종법특위 11월 26일 회의
후반기 논의…간사에 원각 스님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가 첫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 미비사항 검토와 제안을 통한 현실에 맞는 종무행정 실현을 다짐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는 11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위원 만당 스님, 도륜 스님, 각진 스님, 성원 스님, 철우 스님, 원각 스님, 종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이 참석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법과 포교법, 선거법, 종무원법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며 “종헌 종법이 현시대에 맞게 다듬어져, 종무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스님들은 종헌 및 종법에 대한 정비와 미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만당 스님은 “종법종법을 뛰어넘는 종령 규칙이 있다며 잘 살펴 올바로 갈 수 있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활발한 논의로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철우 스님도 “내년 4월 조계종 총무원1원 체제로 개편되는 시점에서 종헌정법특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협조하며 시대에 맞는 종헌종법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심도있는 논의로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헌종법특위 간사는 원각 스님이 선출됐다. 원각 스님은 “전반기에도 짧지만 간사를 살았다. 위원장 스님 잘 모시고 위원스님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25년 1월부터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임은호 기자



